



하심·공경은 ‘人佛사상’ ‘본래성불’ 실천하는 구도행

‘법화경’ 상불경보살품 믿고 받아지녀 실천합시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무차별 폭격, 2000여 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하는 문명시대에 믿기 어려운 종교전쟁이 재연되고 있다. 나의 신은 옳고 너의 신은 마구니라는 이분법적인 분별심에서 기인한 ‘무지’는 상대방을 죽이고 영토를 빼앗으려는 ‘탐욕’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테러와 전쟁이라는 ‘본노’의 악순환을 낳고 있다.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전쟁은 물론,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폭력과 분쟁, 분열이 종식되기 위해서는 저마다 상대방을 인정하는 평등한 마음이 회복되어야 한다. 나아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다면 사회, 국가, 인류는 저절로 평화와 행복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나’와 ‘나의 것’이라고 하는 아상(我相)과 아집(我執)을 버리기 위해 끝없이 하심하는 동시에 이웃을 존중·배려하며 보살도를 실천하는 대승불교의 정신은 우리 시대에 꼭 필요로 하는 덕목이기도 하다. 특히 <법화경>에서 모든 이를 부처로 보고 공경·찬탄하며 하심이 자신을 낮추는 ‘상불경보살’의 바라밀행은 구도자의 자제인 동시에 배려와 소통, 섬김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덕목이기도 하다. 말법 시대에 교만한 불교도가 생겨서 정법이 흐려지게 됐을 때 등장한 상불경이란 비구수님은 부처님 전생의 모습인 동시에 보살도를 닦는 우리시대 불자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나는 당신을 깊이 존경해 감히 가벼이 여기거나 업신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모두 다 보살도를 실천하여 앞으로 부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불경보살의 끝없는 예배와 찬탄은 ‘누구나 부처가 되리라’는 수기(授記)인 동시에 모든 이가 부처님 아들, 즉 ‘불자(佛子)’라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사람이 부처’라는 ‘인불(人佛)사상’은 <법화경> 뿐만 아니다. 모든 경전과 조사어록의 공통된 가르침이기도 하다. <화엄경>은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셋이 차별이 없다”라고 했으며, 조사스님들은 한결같이 ‘중생의 마음 그대로가 부처’라는 의미의 ‘본래성불(本來成佛)’을 강조하고 있다.

야보 선사는 <금강경요해>에서 “당당한 대도여! 밝고 분명하다. 사람마다 본래 갖추고 있고, 저마다 다 이뤄져 있네”라고 노래했다. 또 홍백 선사는 <원통록>에서 “보리 달마께서 서쪽에서 오시어 오직 일심(一心)의 법만 전하셨으며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바로 들어 보여주셨다. 그것은 수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지금 그대의 마음을 돌이켜 자신의 본성을 볼 일이지 특별히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없다”고 했다. 간화선의 완성자인 대혜 선사도 <서장>에서 “이 마음이 바로 본래 이뤄져 있는 부처임을 깨달으면, 온전한 자유 속에서 일마다 안락할 것이다. 가지가지 묘한 작용이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니 그것은 스스로가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상대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확대 해석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 상대를 짓밟아야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세상, 이런 각박한 시기에 상불경보살의 외침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 이웃, 낯선 이와도 같은 마음으로 올라갈 때, 상불경보살의 온화한 미소를 떠올려보자.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마워요.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실천해 보자. 올 한 해는 <법화경> ‘상불경보살품’을 읽고 외우며 진심으로 믿고 받아지녀, 하심·공경하는 보살이 돼 보자.

김성우 기자



용주사가 2003년 개최한 효축제 ‘제1회 화상 용주사 승무제’에서 봉행한 지역 어르신들의 백수연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법화경’ 상불경보살품(常不輕菩薩品)

그 때 부처님께서 득대세보살(得大勢菩薩) 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제 알아서 <법화경>을 지니는 이를, 어떤 사람이 나쁜 말로 욕설하거나 비방하면 큰 죄를 받을 것은 앞에 말함과 같고, 그의 얻는 공덕도 전에 말한 것과 같아서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뜻이 청정하리라.

득대세보살이여, 지나간 옛적 한량 없고 그 지 않고 부사의한 아승지갑 전에 부처님이 계시었으니 이름이 위음왕(威音王; 불경에 보이는 최초의 부처님. 과거 대겁인 장엄겁 이전 공겁(空劫) 때의 부처님. 선종(禪宗)에서는 진실의 세계를 ‘위음왕불 이전’의 소식이라 한다.)여래·응공·정변지·명행족·선서·세간해·무상사·조어장부·천인사·불·세존이시고, 겹의 이름은 이쇠(離衰; 쇠약함이 없음). 국토의 이름은 대성(大成)이었는데.

그 위음왕부처님이 그 세상에서 천상, 인간과 아수라를 위해 법을 말씀하시는데, 성문을 구하는 이에게는 사제 법을 말씀해 나고 높고 병들고 죽는 일을 뛰어난 끝끝내 열반케 하시고, 벽지불을 구하는 이에게는 심이인연법을 말씀하며, 보살들에게는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인하여 욕바라질다 법을 말씀해 끝끝내 부처의 지혜를 얻게 했느니라.

득대세보살이여, 이 위음왕부처님의 수명은 40만억 나유타 향하사겁이요, 정법이 세상에 머무는 겹의 수효는 한 남십부주 티끌 수와 같고, 상법이 세상에 머무는 겹의 수효는 4천하의 티끌 수와 같느니라.

그 부처님이 중생을 이익케 하신 연후에 열반했고, 정법과 상법이 다 없어진 뒤에 이 국토에 또 부처님이 나왔으니 역시 이름이 위음왕여래·응공·정변지·명행족·선서·세간해·무상사·조어장부·천인사·불·세존이었는데.

이렇게 차례차례로 2만억 부처님이 나왔는데 모두 이름이 같았느니라. 최초의 위음왕여래께서 열반하신 뒤 정법이 없어지고, 상법 동안에 뛰어난 제 하는 비구들이 큰 세력을 가지었고, 그 때 한 보살비구가 있었으니 이름은 상불경이라 했느니라.

득대세보살이여,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상불경이라 했느냐. 이 비구는 무릇 만나는 이가, 비구거나 비구니거나 우바새거나 우바이거나 간에 보는 대로 예배하고 찬탄하면서 이

렇게 말했느니라.

“나는 그대들을 매우 공경하고 감히 경멸하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그대들은 다 보살의 도를 행해 마땅히 성불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이 비구는 경전을 전심해 읽거나 외지는 아니하고 다만 예배만을 행하는데, 멀리서 4부대중을 보더라도 일부러 따라가서 예배하고 찬탄하면서 “나는 그대들을 경멸하지 않노라, 그대들은 다 마땅히 성불할 것이기 때문이니라”고 했다.

4부대중 가운데 성을 잘 내는, 마음이 부정함이 있다가 욕설하면서 말하기를 ‘이 무지한 비구야, 어디서 와서 스스로 자기는 우리를 경멸하지 않노라 하면서, 우리에게 마땅히 성불하리라 하고 수기를 주느냐. 우리는 그런 허망한 수기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했다. 이

모든 이 예배 찬탄하며 “마땅히 성불할 것”이라 수기 “법화경” 받아 지녀 아녹다라삼막삼보리에 이를지니

렇게 여러 해 동안 항상 욕설을 당하여도 성도 내지 아니하고 항상 말하기를 “그대들은 마땅히 성불하리라”고 했느니라.

이렇게 말할 적에 여러 사람이 작대기로 치거나 돌을 던지면 피해 달아나 멀리 떨어진 뒤, 음성을 높여서 외지를 “나는 그대들을 경멸하지 않노라, 그대들은 다 마땅히 성불하리라”고 했느니라.

그는 항상 이렇게 말하므로, 뛰어난 체하는 비구, 비구니와 우바새, 우바이들이 별명을 지어 상불경(常不輕; 항상 경멸하지 않는)이라 하였느니라.

이 비구는 인종을 당해, 허공 중에서 위음왕왕이 앞서 설하신 <법화경> 2000만억 계송을 듣고 다 받아 지니어, 이와 같이 눈의 청정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뜻의 청정을 얻었느니라. 여섯 근이 청정해진 뒤에 다시 수명이 200만억 나유타 해가 증장돼 여러 사람들에게 이 <법화경>을 널리 설했느니라.

이 때, 뛰어난 체하던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들로서 이 사람을 천대해 상불경이라는 별명을 지었던 이들은, 그가 큰 신도의 힘과 말하기 좋아하는 번재의 힘과 매우 착하고 고요한 힘을 얻은 것을 보고 그 설하는 비를 듣고는 모두 믿고 복종했느니라.

이 보살은 다시 천만의 무리를 교화해 아녹다라삼막삼보리에 머무르게 했느니라. 목숨

을 마친 후에는 2000억 부처님을 만났으니, 다 이름이 일월등명(日月燈明)이시라.

그 불법 가운데서 이 <법화경>을 설했느니라. 그 인연으로 다시 2000억 부처님을 만났으니, 다 같이 이름이 운자재등왕(雲自在燈王)이시라. 이 여러 부처님 법 가운데서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고 4부대중을 위해 이 경전을 해설했으므로, 이 예사 눈이 청정하고 귀, 코, 혀, 몸, 뜻이 청정하게 돼 4부대중 가운데서 법을 연설하는 데 두려운 마음이 없었느니라.

득대세보살이여, 이 상불경보살마하살은 이러한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찬탄해 모든 선권을 삼겼고, 그 뒤에 또 천만의 부처님을 만나 그 부처님 법 가운데서 이 경전을 설해 공덕이 이루어져 성불하게 됐느니라.

득대세보살이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때의 상불경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라. 내 몸이 있으니, 내가 과거에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하지 아니했더라면,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빨리 얻지 못했으리라.

내가 앞서 부처님 계신 데서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고 다른 이에게 설했으므로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빨리 얻은 것이니라.

득대세여, 그때의 4부대중인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들은 성내는 마음으로 나를 천시했으므로, 200억겁 동안에 부처님을 만나지 못했고, 법을 듣지 못했고, 스님네를 보지 못했으며, 1000겁 동안 아버지육에서 큰 고통을 받았느니라.

그 죄보가 끝난 다음 다시 상불경보살의 아녹다라삼막삼보리의 교화를 만났느니라.

득대세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때의 4부대중으로서 이 보살을 경멸하던 이가 어찌 다른 사람이라. 지금 이 회중에 있는 발타빠라 등 500 보살과 사자월(獅子月) 등 500 비구니와 사불(思佛) 등 500 우바새이니, 모두 아녹다라삼막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아니하는 이들이니라.

득대세보살이여, 마땅히 알아라. 이 <법화경>은 모든 보살마하살들을 크게 이익되게 해 아녹다라삼막삼보리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보살마하살들은 여래가 열반한 뒤에 이 <법화경>을 항상 받아 지니고 읽고 외고 해설하고 베껴 써야 하느니라.”

佛記2553年 己丑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예

해동불교일제조계종 총무부장
무량사
주지 해철당 명각
신도일동

경남 진주시 명석면 오미리 팔미부락 468번지
전화 055)744-6188 / 010-4871-2745

불교를 배우면 행복해집니다.
대한불교 (재)선학원 족림선원
조계종 **족림불교대학**
광양시 금강정사 금강불교대학(전남 광양시 광영동)

주 지 각 원 합장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1동 17-6번지
전화 051)507-5118, 070-8274-5118

佛記2553年 己丑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예

대한불교 조계종
영주암

회주 불국 정관
주지 금당 범산

- 영주암 유치원·어린이집
- 노인요양원 상락정
- 양정 청소년 수련관
- 개금종합사회복지관
- 노인요양원 영주홈
- 사회복지시설 컴넛하우스
- 부산광역시 청소년 쉼터
- 수영구 자원봉사센터
- 수영구 노인종합사회복지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950
TEL 051)754-2210
http://www.bulgukto.or.kr

佛記2553年 己丑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예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운문사
운문 승가대학
운문 승가대학원

회주 명성
주지 진성

대 중 일 동

www.unmunsa.or.kr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
TEL 054)372-8800, 370-7100
FAX 054)371-0359

佛記2553年 己丑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예

“생활불교 실천불교”
대한불교진각종
대구교구청

교구청장 관천

대한불교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 3동 584-1
TEL 053)255-1450, 1411
FAX 053)252-9703
홈페이지 www.jingak.or.kr